칼빈의 윤리: 절제와 향유가 균형을 이룬 질서 있는 생활

이상원(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기독교윤리)

들어가는 말

윤리사상은 괘종시계의 추와도 같이 좌측의 극단으로 밀고 나갔다가 다시 우측의 극단으로 밀고 나가는 진자운동을 반복해 왔다. 우리는 그 단적인 증거를 의무론과 결과론이 대결하는 철학적 윤리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가 접전을 벌이는 경제윤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학적 윤리학계를 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특히 칸트를 통하여 계승된 의무론적 전통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불문하고 바른 동기와 바른 준칙에 의거해서 행해진 행위라면 도덕적으로 바른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에, 고대 희랍의 소피스트들, 쾌락주의자들, 벤담이나 밀과 같은 공리주의자들, 듀이와 같은 실용주의자들을 통하여 전승된 결과론적 전통은 행동의 동기와 과정이 여하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쾌락과 이익을 안겨주는 행동이라면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윤리를 보면,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구조의 변혁과 분배의 정의의 실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방임적인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근면과 창의적인 생산 활동을 극단적으로 강조해 왔다.

윤리사상이 좌 또는 우로 깊숙이 치우치는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치우침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윤리적 판단의 실수와 폐해를 낳기 때문이다. 먼저 철학적 윤리학이 극단으로 치우칠 때 치명적인 윤리적 판단의 실수를 낳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1. 2차 대전 때 독일 인접국의 국민들은 나치 친위대가 가택을 방문하여 유태인이 집 안에 있는가의 여부를 물었을 때 유태인을 집 안에 숨겨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이 집 안에 없다고 잡아떼는 방법으로 친위대를 돌려보냈다. 이는 나치 정권의 유태인학살만행으로부터 유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인 의무론의 논리에 따르면 이 경우에 비록 유태인을 죽음에 내어 주는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유대인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거짓말하지 말라는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은 명백한 오판이다. 2.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배반하고 팔아넘김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행동에 대하여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인 결과론은 가룟 유다의 행동의 동기가 아무리 악하였다 하더라도 인류구원이라는 극히 선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판단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경제윤리사상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낳는 폐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마르크스주의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유토피아적인 사회구조실현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천 만 명 이상의 무고한 인명을 잔인하게 살상했으며,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를 비롯하여 공산주의 국가 전반에 걸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를 황폐화시켜 놓았다. 2.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근면과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비인간적이고 무한경쟁이 난무하며, 한계계층의 복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문제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수1:7) 참된 윤리적 반성과 실천의 길을 모

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길은 좌와 우를 헤겔이나 키에르케고르와 같이 본질적인 대립과 긴장 관계 가운데서 파악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은 끊임없이 명제와 반명제의 종합을 추구하지만 이 추구는 무한한 추구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종합에 실패하는데, 이는 명제와 반명제가 현실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구조 속에 사로잡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키에르케고르의 질적 변증법의 경우는 아예 종합을 향한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갈등구조를 방치해 버린다. 그러면 현실을 갈등구조 속에 방치하지 않고 명제와 반명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양자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차원을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살려내어 아름다운 삶의 구조를 형성해내는 윤리학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바로 칼빈의 윤리학에서 발견한다. 칼빈은 기독교윤리학을 포함하여 모든 윤리사상들 중에서 명제와 반명제의 어두운 두 극단을 적절하게 가지 쳐 내면서도 양자의 긍정적인 면들을 조화 있게 살려내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신학자이자 윤리학자다. 칼빈은 한편에서는 철저한 절제를 강조하여 생활이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즐거운 향유를 강조하여 삶의 풍요함을 살려내는 질서 있는 아름다운 기독교적 삶의 구조를 훌륭하게 제시했으며, 이 구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바른 삶의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먼저 기독교인의 외형적 생활의 출발점이자 터전인 내적인 경건생활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자기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천국생활에 관한 묵상, 현세생활과 그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법이라는 네 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 네 가지 개념 안에 철저한 금욕과 즐거운 향유의 두 개념이 균형 있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서 필자는 칼빈이 제시한 기독교인의 외형적인 삶의 구조를 서술한다. 다양한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이 삶의 구조의 특징은 절제와 향유의 균형 있는 실천을 통하여 질서 있는 생활의 구현이라는 특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칼빈이 내적인 경건생활에 대하여 말할 때 외형적 생활을 배

제하면서 말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외형적 생활에 대하여 말할 때도 내적인 경건생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두 영역은 밀접한 상관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적인 경건생활에 대하여 말할 때도 그 외연으로서의 외형적 삶의 구조에 대한 시사가 이미 언급되고, 외형적 삶의 구조에 대하여 말할 때도 그 터전으로서의 내적인 경건생활에 대하여도 언급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칼빈이 제시한 기독교인의 삶의 구조가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서술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 기독교인의 경건생활의 네 가지 특징

1. 자기부인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연합해야 한다.[1]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내면적으로 자기 의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고 자신의 신분과 명예가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곤욕을 치르시는 이중적인 죽음을 죽으셨다.[2] 따라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이중적이어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16:24)는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의 내면적 차원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그 외면적 차원이다.[3]

죄의 결과로서 인간은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4] 인간은 지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육체에까지 모든 것이 정욕으

1) 벧전4:1 주석. 필자가 참고한 칼빈 주석은『성경주석/존 칼빈』(서울: 성서원, 1999), 1-20권이다. 칼빈의 주석을 인용하는 경우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성경각권 약어와 장절 표시로 인용을 대신한다.
2) 로날드 S. 월레스,『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73. 이하『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로 약칭함.

로 더렵혀져 있다. 다시 말해서 전인이 바로 정욕 덩어리다.[5] 정욕의 특별한 거처는 육체인데,[6] 성경에서 육체는 인간이 지닌 본성적인 모든 것 또는 사람이 타고 난 모든 것을 의미한다.[7] 본성적 정욕은 생득적 부패(innate corruption)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악독과 악의와 자만으로 가득한 작은 독사들이다.[8] 정욕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끊임없이 육신적인 욕망과 감정들을 산출한다.[9] 이 육신적인 욕망과 감정들이 사람을 자극하고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무법한 행동으로 생활을 이끌어 간다.[10]

본성적 정욕을 죽이고 본성적 정욕의 거처인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충동과 제안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부인(self-denial)이다. 본성적 정욕은 사람의 마음을 이기적인 사랑에 가두어 하나님과 이웃의 요구와 이들과의 교제를 거부하게 한다.[11] 심령 안에서 진행되는 본성적 정욕과의 싸움에서 사단을 물리치는데 성공한다면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12] 자기부인은 본성적 정욕의 지배하에 있는 본성적 혹은 육욕적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13] 육욕적 이성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공상(空想)하는 경향이 있는 바, 자기부인은 이 쓸데없는 공상을 허용하지 않는다.[14] 자기부인은 또한 욕정과 감정을 포기할 것과[15] 세속적

3)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75.
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Eerdmans, 1989), I. 2. 8. 이하 *Institutes* 로 약칭함;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76.
5) *Institutes*, II. 1. 8; 시편119:37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78.
6) 롬7:7 주석; 롬7:8 주석; *Institutes*, II. 1. 9;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79.
7) 창6:3 주석; 갈5:14-18 주석;『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79.
8) *Institutes*, II. 1. 6-7; 마26:36-9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0.
9) 요12:27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76.
10) *Institutes*, III. 3. 10, 12;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76.
11) 마3:1-3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1.
12) 시42:6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2.
13) *Institutes*, III. 7. 1, 2;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3-84.
14) 행1:6-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4.
15) *Institutes*, III. 7. 8; 욥2:7-10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5.
16) *Institutes*, III. 7. 2; 칼빈,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1), 19, 이하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약칭함;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5.

인 야망과 부귀에 대한 갈망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16]

자기부인은 이기적인 사랑 대신 자아증오를 요구한다. 정욕은 맹목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향하여 치달리게 한다. 이기적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한다.[17] 불이 물과 상극이듯이 이기적 사랑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상극이다.[18]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19] 이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기부인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사랑의 요구에 직면할 때 우리의 자아가 무참히 살해당해야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의 본성을 무참하게 꺾으라는 도전을 받는 셈인데, 왜냐하면 자아가 왕 노릇 하는 한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기 때문이다.[20]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자기부인의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이다.[21]

철저한 자기부인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에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다.[22] 자기부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모범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비로소 가능한 실천이다. 나무의 가지가 뿌리로부터 신비한 힘을 얻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인성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켜 자기부인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친교에 들어감으로써 자기부인을 가능케 하는 활력을 얻을 수 있다.[23] 성령은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하는 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자기 의지를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효하게 한다.[24] 자기부인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

17) *Institutes*, III. 7. 4; 갈5:14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5-86;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22, 24.
18) 요13:35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6.
19)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20.
20) *Institutes*, III. 7. 4, 6;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6-87.
21) *Institutes*, III. 7. 7;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7.
22)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24.
23) 벧전4:1 주석; 갈2:2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87, 89.
24) 눅2:50-52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92.

하다는 칼빈의 사상은 칼빈이 자기부인을 중세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이나 수도원의 수사들이나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부류에만 적용하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한 신학적 근거가 된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에 있어서 자기부인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으나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곧 자기부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부인의 삶을 사셨고, 그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되풀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25]

2. 십자가를 짊어지기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이 되기를 원하신다.[26] 기독교인은 내면적 태도(자기부인)에서 뿐만 아니라 외형적 환경에서도(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만나는 일상적인 삶의 고통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일부다.[27] 기독교인은 가난과 병을 제거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환, 가난, 실직, 예기치 않은 재앙, 사별, 권태, 좌절, 비방 등과 같은 필연적인 고난이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징벌이나 고통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 징벌을 가하시는 목적은 기독교인을 멸망시키거나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세상과 함께 정죄 받는 것을 막고 방종과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28] 기독교인은 복음과 의의 수호를 위하여 특별한 고통을 받는다. 이 고통은 기독교인 됨의 특별한 표지

25) 로날드 S. 월레스, 『칼빈의 사회개혁사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261-62. 이하 『칼빈의 사회개혁사상』으로 약칭함.
26) 빌3:1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93.
27) *Institutes*, III. 8. 1;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93.
28) 『칼빈의 사회개혁사상』,264;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41, 42.
29) *Institutes*, III. 8. 1, 7, 8; 시45:23 주석; 빌1:7 주석; 빌1:28 주석; 마24: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94-95;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43.

다.[29]

기독교인이 인내와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가면 성화의 과정이 촉진된다.[30] 자기부인은 내면적인 자기훈련만으로는 성취되지 않는다. 자기부인을 위해서는 환란의 과정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31] 다루기 힘든 거친 말, 완고한 당나귀, 야생 짐승들, 광란하는 미친 사람과도 같은 인간의 본성적 기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의 매를 통하여 길들여질 수 있다.[32] 환란을 통하여 육체를 죽이고 자만심과 이기적 사랑을 없앨 수 있다. 자만에 빠지는 것은 이기적 사랑에 빠지는 것이요 자기부인과는 정반대되는 것인데, 십자가의 체험만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만을 꺾는다.[33]

십자가의 환란을 통하여 순종의 여부를 시험받는다. 환란을 통하여 정욕을 억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순종의 첫 단계는 십자가의 환란을 통하여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용광로의 불이 원광을 제련하여 정금을 만들어 내듯이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에게서 자기 의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참된 순종이 빛을 보게 한다.[34]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35]

십자가를 지는 생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의 환란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환란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환란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의 모범과 모형이 되신다. 하나님은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친애하셨고 기뻐하셨지만 전혀 부드럽게나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시고 영구한 십자가로 시험을 받게 하셨다.[36] 환란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당하신 환란을 본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환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30) 욥42:9-17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95.
31) 시119:67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1.
32) *Institutes*, III. 8. 1, 5; 욥42:8-17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1.
33) *Institutes*, III. 8. 3;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2-103.
34) *Institutes*, III. 8. 4; 욥2:7-10 설교; 시119:67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3.
35)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266;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39-40.
36) 욥기4:7-11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95-96;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35.

의 동반자들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통과 교제를 가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게 된다.[37]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면적으로 우리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때에만 포로, 멸시, 투옥, 수치 그리고 심지어 죽음 자체 등과 같은 환란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38]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하라는 뜻은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성을 모두 벗어 버리고 마치 돌과도 같이 역경이나 번영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생활을 말하면서 환란이 찾아오면 그대로 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내로써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극심한 고통과 큰 괴로움을 전제하는 것이다. 주님은 자신에게 닥친 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닥친 화에 대해서도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애통할 것을 명령하기까지 하셨다(마5:4; 요16:20). 그리스도는 끔찍한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에 질렸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런 죽음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처럼, 기독교인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고생하고 불안해질 것이며, 가난에 찌들면 걱정에 사로잡히며, 치욕과 경멸과 불행에 아픔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지만,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의 환란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39]

3. 부활과 승천에의 참여와 미래의 천국생활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의 죽음에의 참여는 그의 부활에의 참여 없이 따로 체험될 수 없

37) *Institutes*, III. 8. 1; 마10:38,45 주석; 롬6:7 주석; 빌3:1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96.
38) *Institutes*, III. 8. 7; 욥5:17-1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98.
39)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45-50.
40) 벧전4:1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4.

다.[40] 부활의 권능을 향할 때만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41] 기독교인의 생활의 긍정적인 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교통을 통해 얻어진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가 폐기되고 부활을 통해서는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되살아난다.[42] 우리의 죽을 몸이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난다는 것은 중생의 내적 체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마지막 부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세 안에서 육체의 남은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동안 하늘의 생명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령의 계속적인 활동을 뜻하기도 한다.[43] 성령의 활동은 영적 통치(하나님의 나라)와 개혁으로 나타나며,[44] 환란을 당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적적인 섭리적 돌보심으로도 나타나 기독교인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북돋우어 준다.[45]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의 개혁은 육체의 파멸로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소생시키시는 역사로 나아간다.[46] 그러나 현세에서 경험하는 소생의 역사에는 한계가 있다. 속사람은 소생했으나 겉사람은 여전히 연약함과 부패함 안에 있다. 기독교인도 외관상 불신자와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다.[47] 기독교인의 상태는 외관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했다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낸 것에 더 가깝다.[48] 기독교인은 단지 첫 열매만을 맛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첫 열매는 시식에 불과하지만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은택들을 갈망하게 하며 장차 그 은택들을 확실하게 누릴 것을 보장해 주는 충분한 담보가 된다.[49]

41) *Institutes*, III. 9.6;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4.
42) *Institutes*, II. 16.13;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5.
43) 롬8:1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5.
44) 행1:1-4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6.
45) *Institutes*, III. 20. 42;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8.
46) 벧전4: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10.
47) 갈2:20-21 설교; 롬7:22-2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11-12.
48) 벧전1:7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13.
49) 요7:38 주석; 고전15:23 주석; 갈2:20-21 설교; 딤전4:8 주석; 눅1:26-3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14.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승천에도 참여한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마지막 날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승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인은 지금 승천해야 하는 바 그것은 미래의 천국생활에 대하여 현재 묵상하는 것을 뜻한다.[50] 그리스도의 승천에의 참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연동(連動)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참된 안식을 구하도록 자극받는다.[51] 십자가의 주요한 용도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현세의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래 생활을 갈망하도록 하는 데 있다.[52] 십자가는 기독교인의 마음과 심령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는 사닥다리다.[53] 그리스도의 부활에의 참여도 부활의 축복에 대한 현재의 참여가 단지 맛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누리게 될 완전한 자유함을 애타게 갈구하도록 자극한다.[54]

미래의 천국생활에 대한 묵상은 천국 생활의 가치와 영광과 안정성을 현세의 가난과 불행과 불확실성과 냉정하게 비교하는 것이다. 이 비교를 통하여 쇠퇴하는 금생을 증오하고 경멸하게 되며, 금생의 불행을 감내할 수 있게 되고, 금생의 쾌락에 빠지는 것을 절제하게 된다.[55] 하늘이 우리의 고국이라면 이 땅은 유랑지요, 기독교인은 순례자이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무덤이요 세상에 거주하는 것은 죽음에 빠져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56] 마침내 이 세상에서의 장수에 대한 모든 거짓된 환상이 종언을 고하게 된다.[57] 기독교인은 천국 생활에 관한 묵상을 통하여 최고선을 생각하게 되며, 이 최고선을 맛봄으로써 세상을 초월한다.[58] 중세시대에는 이와 같은 천국생활에 대한 묵상을 수도사들이

50) 요20:18 주석; 골3: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15-16.
51) 시147:6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17.
52) 골3: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18.
53) 마26:2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18.
54) 요8:3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78-79, 117.
55) 고후4:17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20;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272;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60.
56) *Institutes*, III. 9.4.;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20;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57.
57) 시90:3-6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21.
58) 마6:21 주석;시30:6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21-22.

나 특별한 영적인 전문가들에게만 요구했으나 칼빈은 모든 평신도들에게 요구했다.[59]

4. 현실세계의 이용과 향유

자기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미래의 천국생활에 대한 묵상은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현세의 물질에 대하여 탐닉하지 못하도록 자극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유혹과 쾌락들은 불쌍한 영혼들을 영원한 파멸로 유혹하는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이다.[60] 이 독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까지도 마비시킨다. 그러므로 부자가 풍부한 상태를 검소하게 견디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빈곤한 상태를 평화롭게 인내로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부자는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전7:29,31)는 바울의 원리에 따라서 무절제한 식욕, 집이나 의복에 대한 지나친 야망, 자존심, 교만함, 결벽증 등과 같이 천국의 삶을 생각하는 일과 영혼을 살찌게 하는 열정을 방해하는 온갖 근심과 애착을 끊어내야 한다.[61] 가난한 사람들은 궁핍한 상태를 인내로 견디기를 배워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빈곤의 상태를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부한 상태에 처하면 그와 정반대의 증상을 보인다. 초라한 의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비싼 의복을 입으면 자랑하고 싶어 안달하며, 초라한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화려한 식사를 하고 싶어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막상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무절제하게 사치를 부리고 남용하게 되며, 초라한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 하고 억지로

59)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273.
60) 시19:8 주석; "Letter of Calvin to Duke of Longueville," August 22, 1559, *Letters of John Calvin* I-IV, ed. Jules Bonnet, English Translation of I and II (Edinburgh 1835-37) and of III and IV (Edinburgh 1858);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275.
61)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66.
62)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67-68.

참는 사람은 부귀와 영광을 얻으면 오히려 거꾸로 교만해진다.[62]

이처럼 기독교인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삶은 부패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속한다. 이 땅의 삶을 하늘의 삶과 비교하면 멸시를 당하고 발밑에 밟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땅의 삶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속하게 만든다는 한 가지 사실만 제외하고는 혐오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63] 자기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미래의 천국 생활에 대한 묵상 등에 의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초연하고 참된 신앙과 감사의 태도를 가진다는 조건 하에서 칼빈은 우리가 활달하고 자유롭게 현세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허락한다.[64] 칼빈은 현세의 축복들은 단지 필요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향유하기 위해서도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65] 칼빈은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무절제와 방종에 빠지는 것을 교정하고자 하는 열심에서 세상 물건들 가운데 필수적인 것들만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보다 훨씬 더 도가 지나치게 양심에 족쇄를 채우는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한다.[66] 어거스틴은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한 것들"에 제한시켰으나 칼빈은 향유의 범주를 필요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대시켰다.[67] 칼빈은 또한 테베사람 크라테스(Crates the Theban)가 자기의 모든 소유가 자기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그 소유를 바다 속에 내어 던진 태도를 비판한다.[68] 칼빈은 하나님이 섭리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즐겁게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음식은 생명을 지탱하는 필수품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도 창조되었

63)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55-57.
64)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277.
65)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62.
66)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63.
67) 딤전6:17 설교;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279; Augustine, *Sermons on the New Testament* (*Library of the Fathers* Oxford, 1854), vol. I, 119.
68)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63.

다. 풀과 각종 열매와 나무들도 필수적인 용도 이외에 그 모습의 아름다움과 향긋한 냄새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시104:15)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은 많은 물건들에게 필수적인 용도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즐기게 하셨다.[69]

칼빈은 특별히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삶을 적당히 향유할 것을 권한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다 자유롭게 호화로이 사는 것을 허용했다. 예컨대 요시야 왕은 공평과 의를 행한 왕인 동시에 부를 이상적으로 이용한 인물이기도 했으며,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서로를 위하여 풍성한 연회를 베푸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심지어 카르멜파의 수도사이자 구두쇠인 나발이 친구들을 초청하여 마음껏 즐기게 한 일도 정당화되었다.[70] 칼빈은 또한 값비싼 옷이나 호화스런 장식품을 이용하여 몸을 단장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비록 물질이 지나치게 호화스럽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고, 예술적 창조의 기술도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71]

69)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65.
70) 렘22:15 주석; 욥기1:2-5 설교;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279.
71) *Institutes*, III. 10. 2; 벧전3:1-4 주석;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280. 절제와 향유을 균형있게 강조하는 칼빈의 물질관은 한국교계에서 진행되었던 청빈론과 청부론의 논쟁을 바로잡아 주는데 규범적 지침을 제공한 다. 청빈론은 물질의 사용을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강조하는 극단으로 치우쳤고, 청부론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부를 축복으로 받는다고 주장하는 다른 극단으로 치우쳤다. 이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상원, "청부론과 청빈론을 넘어서" 『청부론과 청빈론을 넘어서』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4), 56-99를 보라. 김영봉의 청빈론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서울: IVP, 2003); 『사귐의 기도』 (서울: IVP, 2002)에 나타나 있고, 김동호의 청부론은 『깨끗한 부자』 (서울: 규장, 2003); 『깨끗한 크리스찬』 (서울: 규장, 2002); 『깨끗한 고백』 (서울: 규장, 2003)에 나타나 있다.

Ⅱ. 절제와 향유가 균형을 이룬 질서있는 외향적 삶의 구조

1. 하나님의 형상과 질서

자기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미래의 천국생활에 대한 묵상, 현세생활의 향유라는 네 가지 특징으로 구성된 경건생활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절제와 향유의 균형은 칼빈이 발전시키고 있는 외향적 삶의 구조의 골격을 이루며, 이 삶의 구조를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의 구조로 전개시킨다.

타락하기 전 인류는 "사물의 균형 있는 질서" 곧,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증거하는 우주의 정교한 질서와 배열을 반영하는 생활을 하도록 창조되었다.[72]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아담의 타락은 인간의 생활을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뜨렸고, 질서와 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73]

타락 이후에 이 형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있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었다.[74]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생활은 질서 있는 생활을 뜻한다. 예수님의 인성에 모든 과욕 또는 무질서의 추방, 그리고 질서 곧 참된 절제와 조화의 완전한 모형이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에게는 적절한 한계를 뛰어 넘거나, 이성이나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지 아니한 성정이나 감정이 전혀 없다.[75] 예수님은 생활상의 통상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즐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당혹함이나 두려움 또는 비통함 가운데서도 난폭한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시는 완전하고 신적인 절제를 보여 주신다.[76]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적 의지와 인

72) 시68:34 주석; 렘31:35-36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35-36.
73) *Institutes*, Ⅰ. 15.4;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38.
74) 욥1:6-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40.
75) 요11:3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42.
76) *Institutes*, Ⅱ. 16. 12; 시22:15 주석; 눅7:34 주석; 마26:37 주석; 마26:3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42-43.

간적 의지는 결코 불협화하지 않고 충돌이나 적대가 없이 서로 적응한다.[77]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세계가 갱신되고 질서를 회복한다.[78] 이 질서의 회복은 중생한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중생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새롭게 질서가 잡힌 실존과 바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표지들이다.[79] 물론 참된 질서의 최종적 회복을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중생한 사람의 모든 새로운 태도와 행태는 이미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던 대로의 사람의 본래의 모형을 보여 준다.[80]

2. 율법과 질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갱신된다는 것은 참된 의와 거룩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81] 회복된 의와 거룩은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질서가 잡힌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82]

기독교인은 율법의 두 돌판을 균형 있게 준수해야 한다. 첫 번째 돌판은 경건 및 하나님의 예배인 종교의 합당한 의무들을 함양하는 방법(참된 거룩)을 가르쳐 주며, 둘째 돌판은 동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의)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데 관심을 가진다. 잘 정돈된 생활에서는 이 이중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 유지된다.[83]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

77) 마26:3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43.
78) 요13:3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43-44.
79) *Institutes*, I. 15. 4;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44-45.
80) 창1:26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45.
81) *Institutes*, III. 3. 9;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46.
82) *Institutes*, II. 8. 51; III. 3. 16; 욥9:29-35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46-7.
83) *Institutes*, II. 8. 11; 욥1:1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49.

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신앙과 헌신을 돌려 드리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게 살며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도적질하거나 이웃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아도 모두가 헛된 일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서 그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그의 위엄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의 위엄을 없이 하려는 소치이며, 모든 도둑질, 살인, 성적 방종, 해독, 거짓말과 기타 여타의 죄보다 훨씬 나쁜 죄악이다.[84]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마땅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한 다음에 부모, 아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85]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우리의 전 생활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86]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참된 증거다.[87] 그러나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대한 내면적 사랑이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88]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거룩과 의가 실천될 때 생활 속에서 참된 질서가 회복된다.[89]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서 다른 덕행들 가운데 질서와 균형이 가능하다.[90]

84) 신7:22-26 설교; 욥34:4-10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50.
85) 요19:26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50.
86) 욥34:4-10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50.
87) 신5:16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51.
88) 눅3:1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51.
89)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58.
90) 골3:1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59.

3. 자연의 질서와 기독교인의 생활

자연인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행실의 법도를 가르쳐 주는 자연법 또는 자연의 질서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91] 자연법과 성경의 율법 곧 둘째 돌판 사이에는 참된 일치가 있다.[92] 둘째 돌판의 계명들은 자연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모든 열방이 이미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로써 재확인한다.[93] 물론 이 말은 자연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94] 이 말은 자연인에게 올바른 것과 불의한 것, 정직한 것과 천박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에게는 사회를 보전하는 본능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동정심이 있고, 야수같이 잔인하게 피 흘리는 것을 혐오하며, 자기들의 본능에 거슬려 요나를 배에서 내던진 선원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살생 앞에서 공포감에 떠는 본능이 있다. 자연인에게는 성경의 교훈들에 의하여 강화되는 선행의 여러 측면들, 예컨대 나쁜 사귐과 악한 교제가 초래하는 악한 결과들, 행실뿐만 아니라 심령의 순결의 필요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95]

칼빈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룰 때 자연적인 질서를 따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만물의 자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생활의 참된 기독교적 요소에 대한 보완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기독교적 경건의 본질적 요소이자 절대 필요한 요소다. 그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다.[96]

자연의 질서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적 자연계를 통치하는 전체 배열과 정돈까지도 포함한다. 창조에 있어서

91) *Institutes*, II. 2. 22;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2.
92) 딤전5:4-5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3.
93) *Institutes*, II. 8. 1; 엡6: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3.
94) 롬2:15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3.
95) *Institutes*, II. 2. 13; 롬2:15 주석; 시15:5 주석; 욘1:14 주석; 엡4:29-30 설교; 삼하3:12 이하 설교; 엡6: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3-4.
96)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4, 186.

어두움과 빛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자연의 질서다. 따라서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분리를 견지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전질서를 뒤짚는 것이다. 따라서 빛에 속한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에 속한 두 대상을 신뢰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97]

하나님의 음성이 말 못하는 피조물을 통해서도 들려진다. 자연의 질서는 세상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우주의 모든 원소들이 그것들을 위하여 정하여진 법칙을 지키며, 하늘과 땅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땅은 소산을 내며, 바다는 정해진 경계를 넘어 흐르지 않고, 해와 달과 별들은 그것들의 궤도를 돌며, 하늘은 일정한 주기로 회전한다.[98] 따라서 온 자연계를 통해서, 황소, 나귀, 심지어는 돌과 나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본성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 생활의 모범이 된다.[99] 동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를 밝히 보여 주시는 그림 또는 거울이다. 어미 새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자신을 훈련하여 인간적이 되고 결코 잔인한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준다.[100] 흔히 짐승들이 자연의 질서를 사람보다 더 정확히 지키며 더 인간적이다. 예를 들면 짐승들은 피차 유사성을 알아보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순복하며, 그들과 같은 종류에게는 순복하며 잔인하지 않다. 짐승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과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짐승들은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있다.[101]

자연의 질서 속에서 본분의 거울을 발견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암시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102] 마치 썩어 없어질 것처럼 땅에 떨

97) 창17:7 주석; 슥2:7 주석; 렘17:5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5.
98) 사1: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7.
99) 신10:12-14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7.
100) 신22:5-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8.
101) 사1: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8.

어진 씨가 새 생명으로 싹트는 것에서 몸의 부활의 예증을 발견한다.[103] 자연의 질서의 불변성은 구원의 약속의 불변성에 대한 표적이다.[104] 하나님이 비와 해를 주시어 땅의 힘을 돋우어 땅이 소산을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성애의 표적이자 하나님이 우리의 세속적 생활을 뒷바라지하실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을 또한 뒷바라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표적이기도 하다.[105]

4. 자연의 질서와 절제

질서 있는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열심과 열정의 절제다. 육체의 모든 부절제는 악이다.[106] 기독교인은 세속적 위로와 쾌락에 대한 부절제하고 불규칙한 욕구들을 온전하게 절제하고 온건, 온유, 사려분별의 특징이 나타나는 생활을 해야 한다.[107] 예컨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은 사람간의 모든 상호적인 사랑에서 절제와 질서를 요구하는 명령이다.[108]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말씀도 절제의 교훈을 가르친다. 즉 위험에 직면하여 너무 겁먹지도 말고, 그렇다고 하여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109] 기독교인은 이와 같은 절제의 모범을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다.[110]

부절제는 타락한 인간과 사회에서 영위되는 대부분의 생활의 특징이다.

1. 인간관계의 쾌락에는 부절제로 말미암은 무질서가 항상 있다. 연회

102) 사6:1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8.
103) 고전15:36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9.
104) 욥18:1-1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9.
105) 욥18:1-11 주석; 신28:9-14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9.
106) 눅1:11-15 설교; 신5:1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6.
107) 시36:5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6.
108) 마10:37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7.
109) 마10:2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7.
110)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9.

석이나 사교 모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고 이로 인하여 범죄한다.[111]

2. 기독교인의 소송. 기독교인이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에게 호소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11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랑이 소송하는 행동을 규제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법정에서 원수를 상대할 때 온전한 우정을 가지고 해야 하며, 개인적인 보복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고 조용하고 침착한 태도로 해야 한다.[113] 우리는 항상 인내하고 불법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보복 조치를 기다리되 그것을 고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114] 마음이 악의로 가득차고 시기심으로 부패되면 화가 타오르고, 열띤 논쟁으로 가열되므로 사랑을 제쳐 놓게 되면 가장 의로운 대의에서 나온 모든 간청마저도 불경건할 수밖에 없게 된다.[115]

3. 기독교인의 전쟁수행. 하나님은 자기 복수의 수단으로 왕들과 관리들을 세우셨다. 이들의 의무는 백성들 사이에서 범죄 요소들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무질서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에 의하여 일으켜질 수 있는 황폐에 대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장하는 것은 자연적인 형평 원리다. 그러나 자기의 대의의 정당성만 생각하고 무법하게 행동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모든 전쟁은 적당하게 수행되어야 한다.[116]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화를 내거나, 증오심을 품거나, 감정이 격해져서는 안 된다.[117] 정당방위로 다른 사람을 죽인 개인마저도 법을 따라 그렇게 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절제하는 경우에만 무력의 사용을 허락하신다. 부절제한 잔인성은 일체 배제되어야 한다.[118]

---

111) 욥1:2-5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8.
112) *Institutes*, Ⅳ. 20. 20;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9.
113) *Institutes*, Ⅳ. 20. 19, 20; 고전6:7 주석; 마5:4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9.
114) 고전6:9 주석; 눅6:3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9.
115) *Institutes*, Ⅳ. 20. 18;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9.
116) *Institutes*, Ⅳ. 20. 11; 신20:10-1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0.
117) *Institutes*, Ⅳ. 20. 12;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0.
118) 삼하2:17이하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0.

4. 더럽혀진 성관계. 이 관계는 사회생활을 심각한 무질서의 도가니로 만들고, 개인을 엄청난 부절제에 빠지게 한다.[119] 칼빈은 사람들이 더렵혀진 성관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탕한 이야기와 유행가 그리고 댄스 등을 강력하게 반대했다.[120] 결혼은 부절제의 허물을 가리워 주고 수치심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나 떳떳하게 해주는 너울이지만 절제 있게 수행될 때만 음란에 대한 치료책이 된다.[121]

5. 사치와 방탕. 자연은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 자연적 소용을 넘는 것은 모두 불필요하다.[122]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관대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부절제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택을 더 남용한다.[123] 기독교인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이 있다 해도 근검절약 하면서 살아야 한다.[124] 기독교인에게는 이 세상을 임의로 사용할 자유가 있지만, 기독교인의 목표는 가능한 대로 적게 탐닉하는 것과 사치를 억제하고 과다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125] 그러나 다윗이 아름답게 장식된 궁정에서 사는 것이 하등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얼마간의 풍요를 즐기는 것은 괜찮다.[126] 그러나 부자가 사치하는 데는 적절한 한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들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다면, 그것들을 검소하게 사용해야 한다.[127] 부유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부를 탐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128] 부자는 풍요 가운데서 절제를 힘써 자기의 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129]

119) 욥31:9-15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1.
120) 신22:5-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1.
121) 신5:18 설교; 고전7:2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3.
122) 딤전6:8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3.
123) 시104:15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3.
124) 막10:2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3.
125) *Institutes*, III. 10. 4;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3.
126) 23:5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3.
127) 슥9:15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4.
128) 딤전6:3-7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4.
129) 단1:8 강의전의 기도;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4.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작은 강에서 작은 배를 타고 뒤집히거나 강둑에 부딪힐 위험을 만나는 반면에, 부자는 대양에서 돛단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파도와 바람이라는 훨씬 더 큰 위험을 만난다.[130]

6. 과음. 과음은 방탕의 근원이요, 절제의 적이다. 술이 지배하면 자연적으로 방탕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모두 술 취하는 것을 혐오하고 피해야 한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수치심을 잃고, 이성 없는 짐승으로 변하고, 모든 질서와 품위를 상실한다.[131]

7. 야심. 야심은 죄악된 부절제의 경향이 드러나는 인간의 삶의 또 다른 측면이다.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은 많은 재산을 갖는 것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뜨린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야심의 지배를 받는데, 이 야심은 모든 기질들 중에 가장 비굴한 것이다.[132]

한편 절제는 겸손, 인내, 신중이라는 적극적인 미덕으로 나타난다.

1. 겸손. 겸손은 사랑의 가장 좋은 간호원이자 절제의 어머니다.[133] 겸손의 첫 단계는 내면적 겸손으로서, 심령을 살피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본성적 사상들과 경향들을 단호하게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134] 내면적인 겸손은 외형적인 혹은 시민적인 겸손을 수반한다. 외형적 혹은 시민적 겸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식과 과시하는 일을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135] 여자들은 주름장식과 땋은 머리, 금이나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사치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남자들도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 호사스럽게 인형처럼 옷을 입거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금해야 한다.[136] 그러나 절제는 지나친 극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130) 욥1:2-5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4.
131) 엡5:15-1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5.
132) 요12:4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5.
133) 롬12:10 주석; 빌2: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7.
134) 눅14:7-11 주석; 신5:17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7.
135) 눅14:7-11 주석; 딤전6:9-11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7.
136) 딤전2:9-11 설교; 벧전3:3 주석; 신22:5-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8.

멋과 우아함을 전적으로 삼가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호사스러운 옷감도 주님이 만드신 것이며, 예술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베드로는 모든 종류의 장식을 금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허용의 악을 정죄했을 따름이다.[137] 기독교적 겸손의 중요한 측면은 우리 삶의 몫에 만족하는 것이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의 한계 안에서 자신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으로 만족하는 것이 삶의 법칙이다.[138] 기독교인은 건강이 좋지 않음, 가난 그리고 수치까지도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다.[139]

2. 절제는 환란 가운데서 인내로 나타난다.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감정과 욕구가 한계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140] 칼빈은 역경, 모독, 상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염려와 걱정에 직면하여 감정과 슬픔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141]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연약함에 빠져 절제의 한계를 벗어나 감정과 반작용에 의하여 격분하기가 쉽다.[142] 인생의 슬픔이 기쁨보다도 훨씬 쉽게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들 수가 있다.[143] 기독교인은 슬픔까지라도 억제함으로써 마음을 가라앉혀 인내에 이르게 해야 한다.[144] 환란 속에서의 인내는 침묵으로 나타난다.[145] 다윗은 환란을 받을 때 더욱 침묵하기를 힘썼다.[146] 기독교인은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감정을 억제하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이 참 사랑을 베푸실 것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침묵 중에 희망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억제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

137) 벧전3: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8.
138) 시91:11 주석; 막7:24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9.
139) 신8:1-4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29.
140) 고전10:8-9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0.
141) 살전5:16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0.
142) 시85: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0.
143) 욥1:20-22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1.
144) 시39: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1.
145) 시85: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1.
146) 시62:6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1.

하신다는 희망을 가질 때 자신에게 손상을 가하는 자들에게 보복하는 성급함을 품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의를 맡긴다.[147]

그러나 환란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48] 인내는 환란에 대하여 결코 무감각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들의 불행을 인하여 가슴 아파한다. 친구들이나 친애하는 이들이 죽는 때 슬피 애통한다.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근심에 사로잡힌다. 중요한 것은 슬픔을 억제하고, 두려움을 적절하게 삼가며, 염려 또한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49]

3. 신중. 절제는 신중으로 나타난다.[150] 많은 선한 사람들이 무분별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손상되는 경향이 있다. 담대함은 무모함에 의하여 동기부여가 되는 대신 지혜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151] 경솔한 열정은 무기력이나 연약성 못지않은 악이다.[152] 열심의 도가 지나쳐 이성과 절제의 한계를 넘는 일이 없어야 한다.[153] 지나친 열심은 마지막 날에 천사가 해야 할 궁극적인 타작마당 정화작업의 직분을 가로채는 것이다.[154] 구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 구제할 때 관대해야 하지만 헤프게 하라는 뜻은 아니다.[155] 돈을 받는 사람이 자격과 필요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돈을 주는 것은 관대가 아니라 우매다.[156] 가진 것을 모조리 털어서 주지 않은 한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아니라는 광신주의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157]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재앙의 보복

147) 시39:2-3 주석; 신7:16-19 설교; 시38:14 주석; 시97:1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1-32.
148) 살전4:1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2.
149) 살전4:13 주석; 욥1:20-22 설교; 마8:25 주석; 고전7:33 주석; 눅12:2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2.
150)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88.
151) 삼하2:22-23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3-34.
152) 히12:1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4.
153) 마26:5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4.
154) 마13:4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4.
155) 마5:4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5.
156) 시112: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5.
157)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5.

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도 신중을 기하여 사마리아 마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임하기를 요청함으로써 제자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던 바로 그 같은 부절제한 열심을 삼가야 한다.[158] 책망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교사들은 항상 절제해야 한다.[159]

이상에서 말한 겸손, 인내, 신중과 같은 절제의 미덕들은 모두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은사다. 이 미덕들은 인간적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도야될 수 있는 미덕들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뜻에 기쁘게 순복하는 데서 오는 결과다.[160] 기독교의 인내와 철학적 인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기독교인이 은혜의 신적 의지에 순복하는데 반하여, 스토아 철학자는 맹목적 필연 앞에 굴복한다. 십자가 밑에서의 기독교의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쓰고 꿇어 엎드리는 겸비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스토아 철학의 인내는 자만과 독립심에서 나온다.[161] 스토아 철학은 애통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뿐만 아니라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마저도 사악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넣어 주신 감정들은 그 자체로서는 부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감정들이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62]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부절제는 사람들의 삶을 질서 있게 하는 극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163]

5. 자연의 질서와 상호교통

칼빈은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일반적 계시 개념에 근거하여

158) 시28:4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6.
159) 고전4:14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37.
160) 시116:15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40.
161) *Institutes*, III. 8. 11; 시34:1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41.
162) *Institutes*, III. 8. 9; 행8: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42.
163) 시23:5 주석; 엡5:15-1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40, 242.

모든 사람들 간에 거룩한 교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 교제는 사람의 부패성마저도 침해하지 아니한 자연의 질서의 한 요소다. 이 교제는 본성 자체가 명하는 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지는 형제 우애에 의한 상호교통으로 나타난다.

이 교제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필연적으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게 된다.[164] 모든 인간이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다.[165] 동일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는 한 부모에게서 기원한 한 몸이라는 연대성 안에 있는 바, 이것은 자연의 질서다.[166] 이 자연의 질서는 기독교인에게 모든 인류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인류의 범주에는 낯선 사람들,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스스로 도울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 자기들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까지도 포함된다.[167]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이 질서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 예컨대 주인이 종들보다 지위상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고, 종들에게 식탁에서 상석에 앉게 하거나 자신의 침대를 내어 주어 잠을 자게 할 정도로 양보할 필요는 없지만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자녀들로 대우해 주어야 하고 짐승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168] 기독교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 자신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짐승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169]

하나님이 창조 시에 각 사람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개인적인 세계를 만들지 아니하고 한 세계 안에 하나의 공동 거주지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과

164) 마5:4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0.
165) 딤전2:1-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2.
166) 갈6:9-11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3.
167) 갈5:14-18 설교; 갈6:9-11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3.
168) 신5:13-15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4.
169) 신5:19 설교; 갈6:9-11 설교; 욥31:9-15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4-95.

모든 인류가 한 몸으로 결속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호교통을 요구한다.[170] 상호 교통을 보조하기 위하여 말로 교통하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며, 격려와 훈육과 위안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언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말이나 언어를 남용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171] 화폐는 상호 교통하는 수단으로 주어졌으므로 화폐를 남용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오염시키는 것이다.[172] 현실 생활의 일용품을 사용할 때 공동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173] 부자들 편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사랑의 일반관계로서 마땅한 것을 지불하는 자연의 질서다.[174]

하나님은 아무도 자충족할 수 없도록 인간 생활을 정해 놓으셨다. 개인이 아무리 영리하고 자력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인간 생활의 가장 세속적인 필수품 공급의 경우에 있어서 마저도 이웃들을 필요로 한다.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는 자신의 고된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저녁에 어둠을 밝혀 줄 양초나, 자기가 기른 양이나 소의 가죽으로 만든 조잡한 것보다 더 나은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경우, 발에 맞는 신발과 어깨를 따뜻하게 해줄 옷 등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과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자연의 법에 따르면 사람마다 주어야 하고 사람마다 받아야 한다.[175] 따라서 칼빈은 당시 무역업이 인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역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176]

사람은 자기의 직업 또는 소명을 이행함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성취해야 한다.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소명을 받아 태어났다고 해서 그 소명을 바꿀

170) 고전11:11-16 설교; 욥1:6-8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5-96.
171) 엡4:29-30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6.
172) 딤전6:9-11;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6;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49-76.
173) 신20:2-9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6.
174) *Institutes*, III. 7. 7; 엡5:18-21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7.
175) 고전11:11-16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7.
176)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92-103;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125.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양복 만드는 재단사가 다른 무역업을 배울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며, 상인이 농사일을 할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177] 그러나 개인은 공동체 생활에서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소명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자기의 적법한 소명의 한계를 인식할 때 혼돈과 무질서를 피할 수가 있다.[178]

인간이 사회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지워진 수고의 짐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의 생활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묵상의 생활이 수고롭게 노동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이다.[179] 노동은 흔히 지나치게 힘들고 보수도 시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의 노동이든 열심히 일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180]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계획된 은혜의 질서를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세속 생활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건실한 노동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이다.[181]

고리대금업은 노동이나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유익을 기여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유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고리대금업은 살인과 동일 수준의 잔학행위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통해 생계 수단을 확보하는 데 반해 – 농부들은 그들의 일상의 일터에서 피곤하기까지 일하고, 공장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마에서 구슬땀을 흘려 가면서까지 사회를 섬기며, 상인들은 허리 아프게 일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과 위험을 당하기도 하는데 – 무위도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른 바 돈벌레들의 행위는 아주 이상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칼빈은 유통 자본을 창조하는 산업대부의 경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182]

177) 고전7:2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8.
178) 고전7:20 주석; 살전4:1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8.
179) 눅10:38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8-99.
180) 눅17:7 주석; 고전7:2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9.
181) 고전10:31-11:1 주석; 고전7:2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99.

6. 자연의 질서와 상호복종

자연의 질서에는 상호 복종이 포함된다.[183] 사람들 사이에는 이른 바 복종의 보편적 관계가 있는 바, 이에는 예속도 포함되어 있다.[184] 사회 안에는 보편적인 인류 관계 보다 더욱 구속력이 있는 관계가 있다. 백성과 통치자, 종과 주인,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불가침의 질서의 한 요소다.[185] 이러한 질서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권세 있는 자들이 그들의 고유한 자리를 견지하지 못하거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그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가 지탱될 수가 없다.[186] 사회 내의 이러한 질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원만하고 건실한 인간적 생활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187]

물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질서가 가혹한 굴욕과 예속으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188] 그러나 이와 같은 변질된 질서조차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제정하신 목적은 개인의 만족할 줄 모르는 지배와 통치욕으로 나타나는 타락한 인간의 교만과 거만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의 혼돈을 막는 데 있다.[189] 그러나 우위와 종속을 포함하여 모든 직분들의 기원과 기초는 인간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다. 이 질서는 사회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인 참된 순결성과 인간성을 사람과 사회가 나타내고자 하는 데도 있

182) 출22:25 주석; 시15:5 주석: 겔18:5-9 주석; 신23:8-20 설교; 고전7:20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0;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101;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126-28; 헬무트 에써, "칼빈의 경제관 - 소유개념을 중심으로," 이상원 역,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제1회 베어드 강좌; 개혁교회와 칼빈신학 (1998년9월3일), 60 [미출판 프린트물].
183) 엡5:22-26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1.
184) 벧전5:5 주석; 엡5:2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1.
185) 갈3:26-29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2.
186) 출20:1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2.
187) 신5:10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2.
188) 엡6:5-9 설교; 딤전2:14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3.
189) 벧전5:5 주석; 딤전2:1-2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3.

다.[190]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속이 창조의 질서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은 타락과는 무관하게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일부 즉 부속품으로 창조되었다.[191] 타락한 이후 혼인한 여자가 형벌을 받아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남녀관계가 뒤틀려 있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계속적으로 복종하는 데에는 얼마간의 자연적 질서가 남아 있다. 특히 결혼생활의 많은 불편들 가운데 얼마간의 신적 선의 잔재가 남아 있다.[192] 결혼관계 안에서 남자가 여자에 대하여 갖는 우위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193] 남자의 갈비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한 기사(記事)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유사(類似)가 있다.[194] 결혼의 참된 이상이 실현될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반영하여 서로 간에 참 인간적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예증된다.[195] 그러나 결혼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자와 남자 사이에 상호복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도와 잘 살 수 있게 하는 동료와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196] 남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동료가 되도록 창조된 자를 포학하게 다루거나 짓밟아서는 안 된다.[197] 여자는 남자에게 꼭 어울리는 짝이며, 남자의 주변에 있는 그 어느 것도 결코 짝이 될 수가 없다.[198]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 둘 모두에게 새겨져 있다.[199] 남자가 여자 위에 있다는 말은 머리가 몸통 위에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만일 이 둘이 분리된다면 이 둘은 마치 난도질당한 몸의 절단된 지체

190) 딤전2:12-14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103-104, 204.
191) 딤전2:13-15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4.
192) 딤전2:13 주석; 딤전2:12-14 설교; 창2:18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4-205.
193) 고전11:4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6.
194) *Instutues*, IV. 19. 35; 창2:2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6.
195) 삼하1:21-27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6.
196) 창2:18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8.
197) 고전11:11-16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8.
198) 창2:18 주석; 창2:1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8.
199) 욥3:10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8.

들과도 같게 된다.[200] 그러므로 남자에게 있는 권위는 자기에게 짝으로 주어진 여자에 대하여 무례함이 없이 절제하여 행사되어야 한다.[201]

칼빈은 세속적 국가원수를 조국의 아버지, 백성의 목자, 평화의 수호자, 정의의 대통령, 무죄한 자의 변호자로 칭송하는 시편의 관점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참된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의 외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202] 하나님은 세속적 부권과 왕권의 위엄에 자신의 본성을 반영하셨다. 육친의 아버지에게 얼마간의 신의 성품이 있으며, 왕과 통치자에게는 하나님이 누리는 존귀가 얼마간 있다.[203] 세속적 통치의 축복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204] 그런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부성을 참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백성들 위에 거칠게 군림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백성들의 피로 알고 절약해야 하며, 국민들이 형벌을 받을 때도 무자비하고 냉혹해서는 안 되고 측은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205]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요구된다.[206] 왕들과 정부 관리들과 주인들은 자기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의 복종을 결코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207]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은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분의 위엄에 합하는 영예와 경의를 표해야 한다.[208] 폭군들에게까지도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200) 고전11:1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9.
201) 고전11:1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9.
202) *Institutes*, Ⅳ. 20. 24;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5; 통치자에 대한 백성의 복종의 문제를 잘 정리한 글로는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윤리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6), 174-219를 보라 .
203) *Institutes*, Ⅱ. 8. 35; 신5:16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5-206.
204) 갈3:26-29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6.
205) *Institutes*, Ⅳ. 20. 2, 13; 딤전2:12-14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06.
206) 벧전5:5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0.
207) 엡5:21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1.
208) *Institutes*, Ⅳ. 20. 22;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1.

존경을 표할 만큼 정부 제도를 평가해야 한다.[209] 왜냐하면 저울의 한 쪽에는 폭군을 통치자로 갖는 악을 놓고, 다른 쪽에는 통치자가 없는 무정부의 악을 놓고서 저울질하여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할 때, 후자가 더 큰 악이기 때문이다.[210] 통치자와 부모와 남편은 그들 자신이 비록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위를 남용한다 할지라도 순종되고 존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적 신분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불가침의 위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211]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그와 상호 의무 관계로 결속되는 것처럼, 바로 그 섭리에 의하여 더 밀접하고 더욱 더 의미 깊은 띠로 부모, 주인,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과 결속된다.[212] 아무리 아버지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아버지인 한에는 여전히 자기의 자녀들에 대하여 부권을 가진다.[213] 부모가 우리를 가혹하게 다룰 때마저도 그들을 존경할 것을 본성 자체가 가르친다.[214]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순종을 요구함에 있어서 넘어서는 안 될 한계가 있다. 우리는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다니엘이 왕이 한계를 넘었을 때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단6:22)이 좋은 예다.[215] 부모들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 아래서만 자기 자녀들을 다스린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만일 아버지가 불의한 것을 명할 경우에는 순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다.[216]

209) 벧전2:14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1.
210) 딤전2:1-2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1.
211) *Institutes*, Ⅳ. 20. 29;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2.
212) 신22:1-4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2.
213) 출20:1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2.
214) 히12:9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2.
215)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3.
216) 출20:12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3.

더욱이 인간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아주 중요한 상하의 구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 구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일 뿐, 영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양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아무 차별 없이 남자와 여자의 머리다.[217] 사람이 노예제도 아래 있을지라도 그의 영적인 자유는 불가침이다.[218] 모든 사회적 구분들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마지막 부활 시에 정부, 정권, 법률, 계급의 구분, 각종 신분제도, 주종 간, 군신 간, 관민 간의 구분이 종말을 보게 된다. 하늘의 천군천사와 정사들, 교회 내의 목회자들과 고급 성직자들의 신분도 종말을 고한다. 이는 하나님 홀로 사람들이나 천사들의 도움 없이 그의 권세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219]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였다고 해서 이 세상의 현 질서가 뒤집혀지는 것은 아니다.[220] 현실 사회 질서 안에 있는 우열의 모든 구별을 더 이상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폐기하려는 악마적 시도다.[221]

나가는 말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의 참여의 내면적 차원인 자기부인을 통하여 정욕과 이기적인 사랑을 철저하게 죽일 것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의 참여의 외면적 차원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통하여 삶의 고통을 인내 가운데 극복할 것을 요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의 참여인 미래의 천국생활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현세에서의 쾌락에 빠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기독교인의 경건생활이 지닌 철저한 절제의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칼빈은 자기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미래의 천국생활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초연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현세의

217) 고전11:3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4.
218) 엡6:5 주석;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4.
219)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4.
220) 엡6:5-9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4.
221) 엡6:5-9 설교;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215.

생활을 필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하여 향유하는 것이 경건생활의 또 다른 측면임을 균형 있게 강조한다.

칼빈은 절제와 향유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내적인 경건생활의 특징을 중심축으로 하여 외향적 생활구조를 질서 있는 생활로 형성하고자 한다.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삶은 타락 이전에 인류가 갖추고 있었고, 인류가 회복해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질서 있는 삶이 무엇인가는 율법에 나타나 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참된 거룩)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의 균형 있는 실천이 기독교인의 질서 있는 생활구조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하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다. 율법은 자연의 질서와 참되게 일치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인은 마음의 자연법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연계에 나타난 질서와 배열에 따라야 하며, 자연계에 암시된 영적인 은혜의 배열에 주목해야 한다. 자연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제에 있다. 쾌락, 소송, 전쟁, 성관계, 사치와 방탕, 과음과 야심은 적절한 절제 안에서 향유되어야 한다. 절제는 또한 겸손, 인내, 신중이라는 미덕으로 나타나야 하나 이런 미덕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의 적절한 표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질서는 상호교통을 또한 요구한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성과 공통의 인간성 안에서 연대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상호교통의 근거가 된다. 인류는 언어, 화폐, 경제적 유통구조, 노동의 협력 등을 통하여 상호교통 해야 한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써 상호교통 해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조건 하에서 부유한 자는 적절한 부를 향유할 수 있다.[222] 고리대금업은 노동 없이 이웃의 노동의 결과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하나 투자에 대한 적절한 이윤취리는 허용될 수 있다. 자연의 질서는 또한 상호복종을 요구한다. 남자와 여자, 세속적 통치자와 백성들, 부모와 자녀 등에서 볼 수 있는

222) 이로써 칼빈은 소비생활의 유혹을 피하면서 동시에 관념론적인 협동적 재산 공산주의의 유혹을 아울러 피하며, 가난한 자에 대한 부유한 자의 책임도 아울러 인식하면서 평등이라는 의미로 이해된 황금률도 확립한다. 에써, "칼빈의 경제관 – 소유개념을 중심으로," 47.

상하관계에서의 복종은 자연의 질서로서 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본성의 구현을 위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 복종은 주 안에서 하는 복종이라야 하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영적인 평등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 날에는 철폐될 잠정적인 것이다.

타락한 이후의 인류사회는 언제나 좌의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우의 극단으로 치우친 채 끝없는 갈등과 논쟁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의 생활구조도 이와 같은 갈등과 논쟁의 구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에 진보진영에서는 현 정부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한 합법적인 국민투표를 통하여 정당하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과거정권 지도자의 가족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극우로 몰아붙이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는가 하면,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진영 안에 일부 자리 잡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을 진보진영 전체를 비판하는 잣대로 활용함으로써 갈등과 논쟁을 끝없이 야기 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힘을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소진시키고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진보진영에서는 기독교교리와 기독교윤리라고 보기 어려운 이단적인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윤리를 거침없이 주장함으로써 한국 교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반면에, 보수진영에서는 정통교리에 부합하는 바른 윤리적 실천에 무관심함으로써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절제와 향유를 탁월한 방법으로 균형 있게 조화시킴으로써 좌우 어느 극단으로도 빠져들지 않고 질서 있는 내면적이고 외향적인 생활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칼빈의 윤리학은 훌륭한 규범적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